조사연구(2021. 5) 22권 2호: 1−31
DOI http://dx.doi.org/10.20997/SR.22.2.1

연구논문

한국인의 여가활동 잠재유형과 영향요인*

신아름** · 김석호***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인의 여가활동 유형을 추출하여 그 특성을 비교하고, 각 유형의 영향요인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18 국민여가활동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전국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잠재집단분석(Latent Class Analysis)을 수행하고, 여가활동 유형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사회경제적 특성, 인구학적 특성 그리고 여가자원 특성을 검토하였다.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여가활동의 잠재집단 유형은 '일상적 여가형', '스포츠·관광 몰입형', '취미오락 중심형', '적극적 옴니보어형', '문화예술 애호가형' 등 5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일상적 여가형'과 다른 네 가지 유형을 비교한 결과 첫째, 교육수준, 가구소득, 거주지역 등의 사회경제적 특성이 '일상적 여가형'과 다른 네 가지 유형을 구분 짓는 중요한 요인이다. 둘째, 성별과 연령은 '일상적 여가형'과 다른 네 가지 유형을 차별화하는 특성으로 나타났으며, 혼인여부와 일인가구 여부는 부분적으로 '일상적 여가형'과 다른 유형을 구분짓는 요인이다. 반면 연령대별 자녀 수는 대부분 '일상적 여가형'과 다른 네 가지 유형을 구분짓는 데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여가 자원의 경우 여가시간이 증가할수록 '적극적 옴니보어형'과 '문화예술 애호가형'보다 '일상적 여가'형에 속할 가능성이 크고, 여가비용이 많을수록 '스포츠·관광 몰입형'과 '취미오락 중심형'에 속할 가능성이 크다. 이 연구는 한국인의 다양한 여가활동 지형을 읽어내고 서로 다른 여가활동에 관련된 원인을 인구학적 특성, 사회경제적 지위, 여가자원 차원으로 구분해 설명함으로써 향후 정책 수립에 필요한 심층적 정보를 제공한다.

주제어: 여가활동 유형, 여가활동 유형 영향요인, 잠재집단분석, 국민여가활동조사

---

* 본 연구는 신아름(2021)의 박사학위논문을 수정·보완하였으며 서론, 이론적 배경, 자료분석 결과 등을 새롭게 재구성하였음.

**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객원연구원(areumshin@snu.ac.kr).
***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seokhokim@snu.ac.kr), 교신저자.

Ⅰ. 서론

여가는 '일에서 벗어나 자유의지에 따라 행해지는 다양한 활동들로 구성된 삶의 영역(Dumazedier 1967; Wilson 1980; Roberts 2010; Kelly 2019)'이다. 개인이 자유시간에 참여하는 개별 여가활동들이 총체적으로 결합하면서 개인의 여가활동 패턴이 형성된다. 그런데 행위자의 여러 가지 특성에 따라 여가활동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동일한 특성의 사람들 내에서도 여가활동 양상의 이질성은 존재한다. 따라서 여가활동 간에 상호 연계되는 양상을 일관된 하나의 현상으로만 간주할 수는 없다. 즉 개인의 여가활동을 적절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특정 여가활동에 집중하기보다는 다수의 개별 여가활동 간에 상호 연계되는 양상을 다루어야 한다. 이러한 여가활동의 상호 연계적 특성과 집단 내 이질성을 고려할 때, 개인이 참여하는 여가활동 양상을 읽어내기 위한 구체적인 접근방식으로 여가활동에의 참여 정도에 기반을 둔 여가활동 유형화를 떠올릴 수 있다. 여가활동 유형화는 개인의 포괄적인 여가생활을 보여줌과 동시에, 집단 내 여가활동의 분화를 읽어내는 작업을 가능케 하기 때문이다(권소영·이재림 2019).

그러나 개인의 특성과 여가활동의 연관성을 다룬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다양한 여가활동 참여가 어떻게 유형화되는지를 통합적으로 조명하기보다는 파편화된 개별 여가활동을 병렬적으로 다루며 개인 특성과의 관련성을 파악하는 데 주력한다. 구체적으로, 주로 회귀분석기법을 통해 개별 여가활동이 연령, 성별, 혼인 여부, 계층 등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파악하거나, 대응분석기법을 활용하여 개인의 특성과 여가활동 간의 참여 연계성을 시각화했던 연구들(Gayo-Cal 2003; Gayo-Cal 2006; Choi, S., S.J. Kim, & Lee 2017; Rankin, B., M. Ergin, & F. Gökşen 2014; Kahma, N. & A. Toikka 2012)이 이에 해당된다.

하지만 개별 여가활동에 집중하는 여가연구의 접근방식이 개인의 여가활동을 총체적으로 살펴보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이 드러나면서(민경선 2016), 다양한 양적 데이터를 활용하여 여가활동 유형화에 따른 집단 내 분화를 살펴보는 연구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먼저 눈에 띄는 여가활동 유형화 연구의 큰 흐름은 일부 여가활동의 범위 내에서 여가활동 유형을 분류한 연구들이다. 이 연구들은 주로 문화예술활동이나 스포츠 활동(Alderson, Junisbai & Heacock 2007; Jæger & Katz-Gerro

2008; 성연주 2018; Paul & David 2013; Germar 2020), 그리고 사회적 활동(박미진 2017; 이소정 2009; Park, M.J., N.S. Park, & Chiriboga 2018)의 범위 내에서 참여 여부에 따라 집단을 유형화했다.

일련의 연구들은 행위자들의 여가활동 전반을 고려하여 여가활동 유형화를 시도했다. 대부분의 연구들은 노인(Lee & Payne 2015; Nimrod & Adoni 2006; 김외숙 2016; 황남희 2014; 정병두 2017; 박근수 2011; Park, M.J., N.S. Park, & Chiriboga 2018)이나 예비노인에 해당하는 중고령층(강은나 2016; 강은나·김혜진·김영선 2017), 기혼 취업자(차승은 2012; 김영서 2020) 등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여가활동 유형화를 시도한다. 한국인의 전반적인 여가활동 지형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특정 여가활동이나 집단을 세분화하여 여가지형의 일부분에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 모집단을 대상으로 여가활동의 양상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

민경선(2016)의 연구는 국내에서 전체 모집단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여가활동의 유형화를 한 유일한 시도로, <생활시간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전국표본을 대상으로 여가활동별로 분배된 시간량에 대한 여가활동 유형화를 시도했다. 이 연구는 여가활동 유형을 '휴식 및 교제 활동형', '인터넷 활용 및 스포츠 관련 활동형', '미디어 활용형', '소일형 및 비활동적 여가생활' 등 4개의 여가유형으로 도출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는 평일과 주말 각각 하루 동안의 여가활동 시간을 분석한 결과로, 이를 자주하는 다양한 여가활동의 총체적 합으로 보기는 어렵다.

기존 여가활동 유형화 연구의 또 다른 한계는 여가활동 유형화를 시도한 후 유형별 영향요인에 대한 분석은 생략했다는 점이다. 앞서 이루어진 대부분의 여가활동 유형화 연구는 여가활동 유형에 따라 여가만족(강은나 2016)이나 행복, 우울(강은나·김혜진·김영선 2017; 박미진 2017; 민경선 2016) 등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력의 차이를 비교하는 데 집중함으로써 여가활동 유형이 어떤 요인들로 인해 이질성이 드러나고 분화되는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지 못했다. 하지만 여가활동의 상호 연계성과 집단 내 이질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탐색하는 작업에서 나아가 여가활동 유형별 차이, 즉 여가활동 유형의 분화를 가르는 영향요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작업은 여가활동 유형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개인의 여가란 다양한 여가활동들로 구성되는 상호 연계된 영역이기 때문에 개별 여가활동 척도를 기반으로 한 유형화가 필요하며, 한국인의 이질화와 분화된 여가활동 지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성인남녀 전체 모집단을

대상으로 여가활동 전반을 포괄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나아가 여가활동 유형을 구분 짓는 영향요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심도 있는 실증분석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 연구는 한국인의 여가활동 유형을 분류하여 유형별 특성을 비교하고, 여가활동 유형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탐색한다. 특히 지금까지 여가활동의 영향요인 논의에서 부분적으로 다뤄졌던 사회경제적 특성, 인구학적 특성 그리고 여가자원 특성을 함께 다룸으로써 보다 다양한 측면에서 여가활동 유형화를 분석하고자 한다. 즉, 이 논문은 한국인의 여가활동을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집단 내 다양성과 이질성을 파악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사회경제적, 인구학적, 그리고 여가자원 특성이 여가활동 유형화에 미치는 영향이 각각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먼저 여가활동의 잠재집단분석(latent class analysis)을 실시하여 유형화한 후, 개인이 해당유형의 여가활동을 참여하는 데 각 특성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본다. 이 연구는 한국인의 다양한 여가활동 지형을 읽어내고 서로 다른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원인을 사회경제적 지위, 인구학적 특성, 그리고 여가자원 차원으로 구분해 설명함으로써 향후 정책 수립에 필요한 심층적 정보를 제공한다는 의의를 가진다.

Ⅱ. 여가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여가에 관한 기존 논의는 여가활동을 결정하는 데 있어 다양한 영향요인들을 강조해 왔다. 특히 교육, 소득, 직업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요인은 사회적 위계가 형성되어 있는 구조체계로서 개인이 각기 다른 생활양식을 갖게 하는데, 이러한 생활양식의 차이가 가장 잘 드러나는 영역이 여가다(Turner 1984; Parker 1976). 사회경제적 요인이 여가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부르디외(Bourdieu 2005)는 이론적 틀을 제공하며 논의한다. 부르디외(Bourdieu 2005)는 계층에 따라 문화자본을 소유할 수 있는 가능성이 결정된다고 주장한다. 경제자본과 문화자본의 소유여부에 따라 경험하는 여가활동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계층의 격차가 여가영역까지 확장되어 계층 정체성이 더욱 공고해지는 기제로 작동한다. 이러한 부르디외의 이론적 틀을 바탕으로 국내·외에서 사회계층변수와 여가활동의 관계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다수 이루어졌다.

부르디외(Bourdieu 2005)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다양한 여가를 즐기며, 일상적 여가보다는 오랜 시간 습득한 지식이나 어느 정도의 경제적 투자를 통해 이루어지는 진지한 여가를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간스(Gans 2008) 역시 교육은 여가활동 선택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 보았다. 그에 따르면, 여가경험을 통해 접하는 문화적 내용은 대부분 교육수준을 바탕으로 형성된다. 즉 여가를 선택하는 심미적 수준과 취향은 가정과 학교의 학습과정을 통해 형성된다는 것이다. 이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드러나는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역사, 문화, 여행에 관심이 있고 평생교육 프로그램처럼 교육적 의미가 있고 자기성장을 할 수 있는 여가를 선호한다(Ahn & Janke 2011). 교육수준이 높은 남성 중·고령자들은 스포츠 관람이나 단순 오락보다 학습이나 자원봉사 등 다양한 여가활동을 동시에 하거나 직접 스포츠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강은나 2016).

소득이 여가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저소득층일수록 시간소비적인 여가활동을 하고, 가족과 함께 지내는 여가를 통해 불충분한 소득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경향이 있다(서헌 · 공윤주 2015). 반면 고소득층은 여가활동 참여율이 더 높고(강은나 외 2016), 시간소비적인 여가의 비중이 작으면서 다양한 종류의 여가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지우석 외 2013). 여가활동에 있어 경제활동 참여나 직업 여부도 중요한 변수이다. 경제활동 참여 여부에 따라 여가시간의 양이 결정되고, 가용할 수 있는 경제적 자원의 양이 달라진다(Haworth & Veal 2004; Choi & Bum 2019; Roberts 2006). 미취업자들이 취업자들에 비해 TV 시청률이 높고(윤혜진 2015),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근로시간의 제약으로 무직에 비해 여가활동을 즐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강은나 외 2017; 이상직 외 2018). 직업에 따라 여가에 할애하는 시간 및 비용과 더불어 여가활동의 내용도 달라질 수 있다(Parker 1976). 관리/전문직 및 사무직/준전문직은 다른 직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양한 여가활동을 즐기는 것이다(남은영·최유정 2008).

국내 선행연구에 의하면 지역 또한 여가활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되어 왔다(허지정·최막중 2009; 홍윤미 외 2015; 장혜미·김재범 2014; 이재희 2010; 박태선 외 2015). 이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거주지역에 따라 여가시설 유무나 물리적 거리 등 여가활동에 대한 접근성에 있어 차이가 있으며, 이로 인해 여가활동을 선택하거나 참여하는 데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한다. 특히 장혜미·김재범

(2014)은 지역 격차가 문화접근도와 문화이용도에 있어서의 차이를 심화시킨다고 지적한다. 특히 박태선 외(2015)는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격차가 여가문화의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밝힌다.

사회경제적 특성뿐 아니라 성별이나 연령 그리고 혼인 여부나 연령대별 자녀 수 등 개인의 인구학적 특성으로 인해 경험하게 되는 여가활동의 차이 역시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여러 인구학적 특성 중에서 성별은 여가활동 참여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변수로 간주되어 왔다. 여성이 남성보다 문화예술 관련 활동에의 참여율이 더 높고, 남성의 경우 스포츠 관련 활동에 상대적으로 더 자주 참여한다. 또한 자녀를 두고 있는 기혼 여성의 경우 자녀 교육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여가활동에 참여하려는 경향이 있다(Gayo-Cal 2006; Le Roux et al. 2008).

반면에 여성이 남성보다 소극적인 여가활동을 한다는 연구결과들도 보고되었다. 여성 중·고령자는 같은 연령대의 남성에 비해 참여하는 여가활동의 범위도 제한적이며, 특히 성인 자녀 수가 많고 연령이 높을수록 여가 소외 현상이 더 많이 나타나기도 한다(강은나 2016). 여가활동의 유형결정 요인에 대한 많은 연구들의 연령 변수 관련 내용을 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여행과 친목 위주의 여가생활을 하며(정병두 2017), 직업이 있는 중년층의 경우 사회활동이 많기 때문에 관계형 여가를 선호한다(서헌·공윤주 2015). 또한 연령이 낮을수록 자기실현 욕구가 강하여 적극적 여가를 즐긴다(Hitchings et al. 2018).

여가활동은 가족 관련 특성과도 연관성이 크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 스포츠 레저 활동과 같은 여가에의 참여가 더 낮은 반면(김미혜 외 2018), 배우자와 함께 같은 종류의 운동을 할 경우 더 규칙적으로 여가활동을 하기도 한다(강은나 외 2015). 이와 달리, 배우자가 없을 경우 개인시간을 더 많이 확보하여 여가활동 참여가 더 늘어난다(안주석·임근욱 2017)는 연구결과도 있다. 배우자 여부와 함께 중시되는 또 다른 가족 특성은 자녀의 연령이다. 자녀의 연령과 여가활동의 상관성을 다룬 일련의 연구들은 자녀의 연령이 여가의 제약요인으로 작동한다고 지적한다. 한편 자녀 교육을 위해 여가활동이 활성화되고 여가활동의 폭이 넓어진다는 상반된 주장도 있다. 또한 자녀 양육기에 있는 성인들은 미혼의 상태보다 여가를 즐기기 어려워지지만,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진다(윤소영·차경욱 2004).

자녀의 연령대에 따라서도 참여하는 여가활동이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녀가 학업에 몰두하는 시기가 되기 전까지는 부모와 함께하는 여가시간이 가장 많

은 시기인데, 이 시기에 자녀와 함께하는 여가활동이 계층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송유진 2017; Gracia 2015). 최근 일인가구 비중이 늘어나면서 일인가구와 다인가구의 여가를 비교한 국내의 연구들도 등장했다. 일인가구인 경우 다인가구보다 집 안에서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여가생활을 할 가능성이 높다(황영주·이훈 2018; 강은나 외 2017; 김은정 2017; Jeong & Yoon 2018).

사회경제적 특성 및 인구학적 특성과 함께 여가자원의 특성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여가활동에 영향을 주는 여가자원으로는 여가시간과 여가비용을 들 수 있다. 업무시간 외의 여가시간이 적을수록 휴식이나 취미오락 등의 여가를 즐기는 시간이 줄고 적극적인 여가활동이 늘어날 수 있다(윤소영 2018; 김미경·김지은 2017; 민경선 2016). 민경선(2016)은 여가활동 시간을 기준으로 여가활동 패턴을 구분해 분석한다. 이 연구는 여가활동 유형의 결정요인에 대해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여가시간이 길수록 '인터넷 활용 및 스포츠 관련 활동형'에 비해 '휴식 및 교제활동형'에 속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비용 역시 여가활동 참여를 결정짓는 주된 요인으로 많은 연구에서 검증된 바 있다(한승엽 외 2007; 양광희 외 2008; 남은영 외 2012).

결론적으로, 개인이 어떤 여가활동 유형에 속하는가를 다각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의 교육수준, 소득, 직업, 거주지역 등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성별, 연령, 혼인 여부, 연령대별 자녀 수 등의 인구학적 특성, 그리고 여가비용과 여가자원을 포함하는 여가활동 분석모형을 구성해야 한다는 점이 분명해진다. 본 연구는 여가활동에 대한 잠재집단분석을 적용해 유형화한 후, 특정 여가활동 유형에 속할 확률이 사회경제적 변수, 인구학적 변수 그리고 여가자원 변수에 의해 어떠한 영향을 받는가를 살펴본다. 본 논문의 연구문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한국인의 여가활동은 어떤 유형으로 분류되며, 유형별 특성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2. 여가활동 유형 간의 차이를 설명하는 데 사회경제적 특성(교육수준, 가구소득, 직업, 거주지역), 인구학적 특성(성별, 연령, 혼인 여부, 연령대별 자녀 수, 일인가구 여부), 그리고 여가자원 특성(여가시간, 여가비용)은 얼마나 유의미한가?

Ⅲ. 연구방법

1. 연구자료와 분석방법

본 연구는 분석을 위해 <2018년 국민여가활동조사> 원자료를 사용한다. 이 조사는 다단계 층화 집락표집(stratified multi-stage cluster sampling)을 통해 지역별로 추출한 전국 10,000가구의 만 15세 이상 가구원 중 미성년자와 결측치 사례를 제외한 응답자 9,428명을 대상으로 한다. 조사방법은 조사원이 표본으로 선정된 가구를 방문하여 설문지에 응답 내용을 기입하는 자기기입식 면접조사이다.

여가활동 참여 여부에 따른 잠재유형을 파악하기 위해 잠재집단분석(latent class analysis) 기법을 활용한다. 잠재집단분석은 집단 내에서 잠재활용변수에 따라 두 개 이상의 이질적인 분포가 구성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최적화된 잠재집단을 탐색하는 통계기법이다(Lanza & Rhoades 2013). 잠재집단분석은 모델 적합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명확하며, 집단의 소속 여부에 대해 유의도를 검증할 수 있다(Amato et al. 2016).

다음으로 추출된 잠재집단을 대상으로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multi-nomin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한다.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은 집단변수를 종속변수로 활용함으로써 독립변수가 집단 소속을 결정하는 요인인지 확인하는 작업이 가능하다. 따라서 잠재집단분석을 통해 도출된 여가활동 유형을 결정하는 개인의 특성을 파악하는 데 적합하다. 구체적으로, 사회경제적 특성과 인구학적 특성 그리고 여가자원 특성이 여가활동 유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본다.

2. 변수

여가활동 참여 여부는 '자주 참여하는 여가활동' 1순위에서 5순위까지 응답을 받은 후, 문화예술 참여, 문화예술 관람, 스포츠 참여, 스포츠 관람, 관광, 취미오락, 휴식, 관계형 여가 등 8개 여가활동에 대해[1] 응답자가 해당 여가활동에 자주 참여

1) 여가활동의 내용적 측면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여가활동 유형 분류기준에 따라(문화체육

한 경우 1의 값을 부여하고, 참여하지 않은 경우 0으로 재코딩하여 분석하였다.

여가활동 유형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사회경제적 변수, 인구학적 변수 그리고 여가자원 변수를 포함했다. 여가활동의 잠재집단 유형 소속과 관련하여 사회경제적 변수로 교육수준, 가구소득, 직업, 거주지역 등을 고려한다. 교육수준은 '중학교 졸업'을 준거집단으로 삼고, '고등학교 졸업'부터 '대학원 이상'까지를 더미변수로 구성했다. '가구소득'은 연속변수로 구성하여 분석에 활용한다. 직업은 '직업 없음'을 준거집단으로 설정하고 '관리직/전문가', '사무직', '판매/서비스직', '농림어업', '단순노무기능직'으로 더미변수화한다. 거주지역은 '비수도권'을 준거집단으로 삼고 '수도권'을 더미변수로 설정한다.

인구학적 변수로는 성별, 연령, 혼인 여부, 연령대별 자녀 수, 일인가구 여부 등이다. '남성'을 준거집단으로 삼았다. 연령변수는 연속변수로 구성했다. 혼인 여부에 대해서는 미혼, 이혼, 사별 등의 '배우자 없음'을 준거집단으로 설정하고, 기혼 상태인 '배우자 있음'을 더미변수화하였다. 기혼자의 자녀 수와 관련하여 자녀의 연령대에 따라 '미취학 자녀 수', '취학 자녀 수, '성인 자녀 수'로 나누고 각각을 연속변수로 구성하여 모형에 투입했다. 일인가구 여부의 경우 '일인가구'를 기준으로 삼고 '다인가구'를 더미변수로 구성하였다.

이 연구는 사회경제학적 변수와 인구학적 특성 외에 여가시간과 여가비용 등과 같은 여가자원 요인의 영향력을 살펴본다. 여가시간은 "지난 1년 동안 귀하의 하루 평균 여가시간은 어느 정도였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평일과 휴일(휴가, 연휴)로 나누어 응답을 받은 후, 두 개의 응답값을 합산하여 평균 여가시간을 산출하였다. 여가비용은 "지난 1년 동안 귀하는 여가생활을 위해 한 달 평균 얼마나 지출하셨습니까?"라는 질문을 통해 측정한 값이다. 여가비용의 응답분포가 정규성을 벗어났음을 확인하고 로그변환한 여가비용을 분석에 투입하였다. 분석에 활용한 변수들의 기술통계는 <표 1>과 같다.[2)]

<표 1>에서 나타난 것처럼, 한국인은 여가시간에 취미오락과 휴식을 하는 경우가 가장 높다. 그 뒤를 친지와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관계형 여가가 잇는다. 문화예술 참여율은 가장 저조하다.

관광부 2018) 문화예술 참여, 문화예술 관람, 스포츠 참여, 스포츠 관람, 관광, 취미오락, 휴식, 관계형 여가 등의 8개 여가활동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2) 분석에 포함된 모든 변수들을 대상으로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한 결과 변수 간 상관관계가 유의함이 확인되었다.

<표 1> 응답자 특성에 대한 기술통계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잠재집단 활용변수	자주하는 여가유형	문화예술 관람	9428	0.19	0.39	0	1
		문화예술 참여	9428	0.06	0.24	0	1
		스포츠 관람	9428	0.15	0.36	0	1
		스포츠 참여	9428	0.32	0.47	0	1
		관광	9428	0.32	0.47	0	1
		취미오락	9428	0.88	0.32	0	1
		휴식	9428	0.88	0.33	0	1
		관계형 여가	9428	0.66	0.47	0	1
	교육수준	중학교 졸업	1737	(18.42)			
		고등학교 졸업	3632	(38.52)			
		전문대 졸업	1501	(15.92)			
		4년제 대학 졸업	2479	(26.3)			
		대학원 이상	79	(0.84)			
	가구소득	월평균 가구소득	9428	4.11	1.73	1	7
	직업	관리직/전문가	341	(3.62)			
		사무직	1567	(16.62)			
		판매/서비스직	2754	(29.21)			
		농림어업	400	(4.24)			
		단순노무기능직	1314	(13.94)			
		직업 없음	3052	(32.37)			
	거주지역	수도권	2374	(25.18)			
		비수도권	7054	(74.82)			
	성별	남성	4682	(49.66)			
		여성	4746	(50.34)			
	연령	연령	9428	49.31	16.11	20	89
	혼인 여부	배우자 있음	5876	(62.32)			
		배우자 없음	3552	(37.68)			
	자녀 수	미취학자녀 수	9428	0.11	0.39	0	3
		취학자녀 수	9428	0.32	0.67	0	5
		성인자녀 수	9428	0.30	0.64	0	5
	일인가구	일인가구	2163	(22.94)			
		다인가구	7265	(77.06)			
	여가자원	여가시간 (평일+주말)	9428	8.88	3.69	0.6	30
		여가비용(만원)	9428	14.99	13.33	0	300

주: ( )안의 값은 범주형 변수인 교육수준, 직업, 거주지역, 성별, 혼인 여부, 일인가구 여부의 비율임.

Ⅳ. 분석결과

1. 여가활동에 따른 잠재집단 유형화

본 연구는 여가활동에 따라 잠재집단이 어떻게 유형화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잠재집단분석을 실시한 후 잠재집단을 2개 유형부터 1개씩 추가하면서 모형 적합도를 비교하여 가장 적합한 잠재집단을 채택하였다. 잠재집단분석에서는 일반적으로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on), BIC(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CAIC (Consistent Akaike Information Criterion) 그리고 Entropy 지수를 통해 잠재집단의 모형 적합도를 판단한다(Collins & Lanza 2009: 88). AIC, BIC 그리고 CAIC 지수가 n-1유형에 비해 작을수록 모형 적합도가 높다고 평가된다. Entropy는 값이 1.0에 가까울수록 모형 적합도가 높으며, 특히 Entropy 값이 0.8 이상이면 좋은 모형으로 평가된다.

<표 2> 여가활동에 따른 잠재집단 모형 적합도 비교

잠재 집단 수	log-likelihood	G2	자유도	AIC	BIC	CAIC	Entropy Rsqd
1	-35379.070	14679.951	247	70774.140	70831.352	70839.352	1.0000
2	-29088.596	2099.002	238	58211.192	58332.767	58349.767	1.0000
3	-28862.845	1647.500	229	57777.690	57963.627	57989.627	0.760
4	-28701.409	1324.629	220	57472.819	57723.119	57758.119	0.787
5	-28571.074	1063.958	211	57230.147	57554.811	57588.811	0.905
6	-28459.644	841.0975	202	57025.287	57404.313	57457.313	0.871

<표 2>는 여가활동을 바탕으로 집단을 유형화하기 위해 잠재집단 수에 따른 모형 적합도를 비교한 것이다. 5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AIC=57230.147, BIC=57554.811, CAIC=57588.811로 모든 지수가 앞 모형의 분석결과보다 낮고, Entropy값이 0.905으로 1.0에 가장 가깝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잠재집단분석 결과 모형 적합도를 비교했을 때 5개 유형이 가장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5개 유형의 여가활동에 따른 잠재집단별 소속확률은 <표 3>에 제시하였으며, 이를 시각화한 그래프는 <그림 1>과 같다. 이는 추출된 5개의 잠재집단에 대한 사후분석 결과로, 각 유형이 갖는 잠재집단확률(latent class marginal probabilities)과 표본 수를 보여주고 있다. cluster size는 전체 응답자에서 해당 잠재계층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며, 총합은 1이다. 표본 수는 개별 응답자가 소속될 확률이 가장 높은 잠재집단출현율(latent class prevalence)을 보이는 잠재집단에 귀속될 것이라는 가정하에 계산된 표본 수이다.

1유형은 전체의 45.59%이며, 표본 수는 4,428명이다. 5개 여가활동 유형 중 가장 많은 사람들이 속하는 여가유형이다. 이 유형에 속한 사람들은 관계형 여가 99.9%, 취미오락 96.5%, 휴식 87.5% 등으로 이 세 가지 활동에는 매우 높은 비율로 참여하지만, 그 외 다른 여가활동에의 참여는 저조한 편이다(문화예술 관람 9.6%, 문화예술 참여 3.3%, 스포츠 관람 9.71%, 스포츠 참여와 관광 0%). 본 연구는 이를 '일상적 여가형'이라 명명했다. 다른 여가활동에 비해 일상에서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여가활동 유형이기 때문이다.

<표 3> 여가활동에 따른 잠재집단별 소속확률 (단위: %, 명)

집단구분	1유형 (일상적 여가형)	2유형 (스포츠·관광 몰입형)	3유형 (취미오락 중심형)	4유형 (적극적 옴니보어형)	5유형 (문화예술 애호가형)
cluster size	0.4559	0.2507	0.1565	0.0713	0.0657
표본 수	4428	2371	1557	665	407
문화예술 관람	0.0960	0.0004	0.2546	0.9877	0.4231
문화예술 참여	0.0334	0.0808	0.0502	0.0906	0.1392
스포츠 관람	0.0971	0.1649	0.2074	0.2295	0.2289
스포츠 참여	0.0000	0.9999	0.0000	0.9998	0.0001
관광	0.0000	0.9999	0.0000	0.9998	0.0001
휴식	0.8753	0.8815	0.9891	0.8008	0.7350
취미오락	0.9649	0.8345	1.0000	0.6164	0.4360
관계형 여가	0.9989	0.6044	0.0040	0.3368	0.49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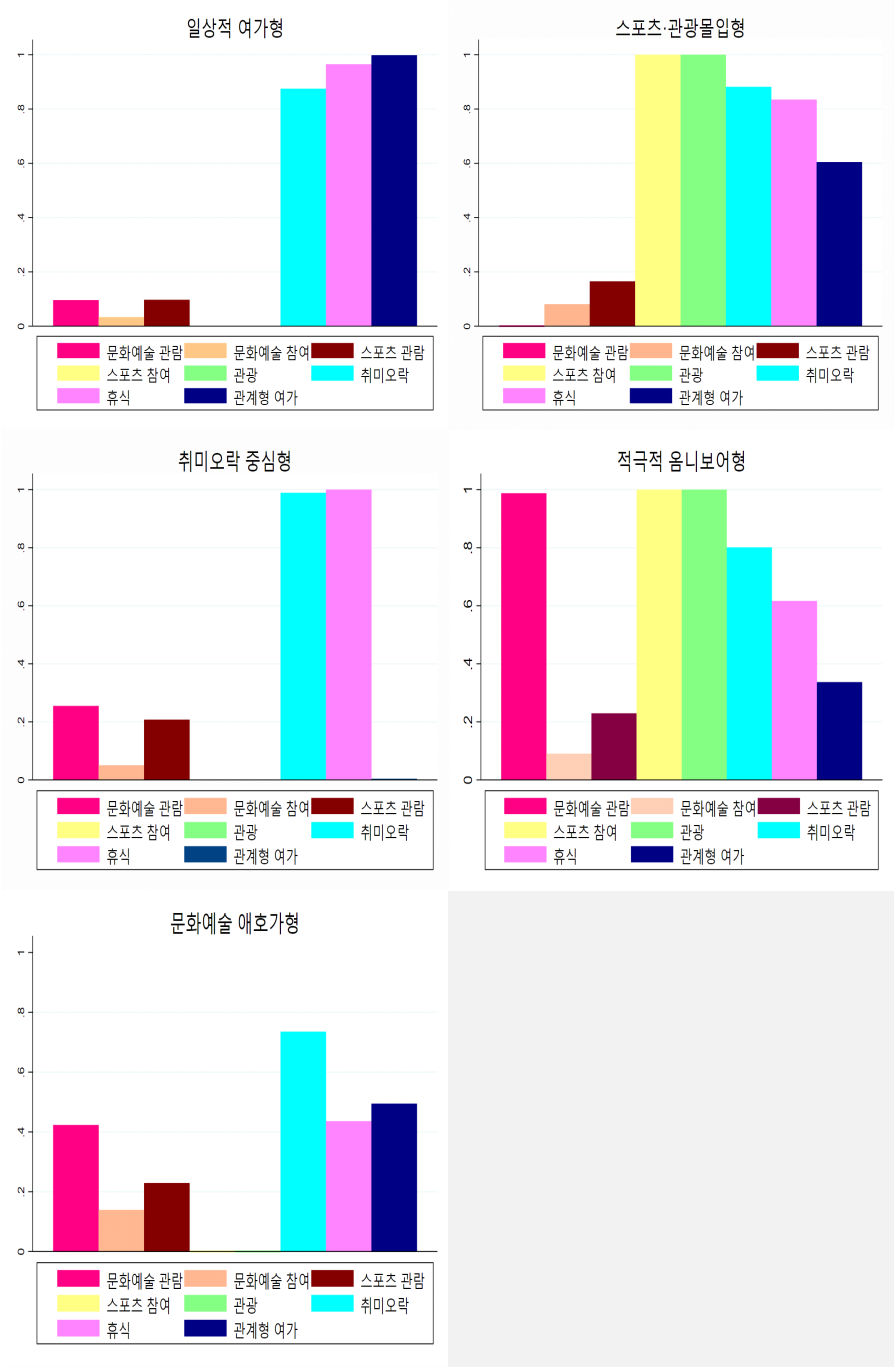
주: 소속확률이 0.1 이상인 부분을 음영 표시함.

2유형은 전체의 25.07%로 표본 수는 2,371명이다. 이 유형은 스포츠 참여와 관광을 하는 비율이 모두 99.99%로 높으며, 다음으로 휴식 88.15%, 취미오락 83.45%, 관계형 여가 60.44% 순으로 참여하는 비율이 높다. 이에 비해 문화예술 관련 여가활동의 참여율은 문화예술 관람 0.00%, 문화예술 참여 0.08%로 매우 낮다. 스포츠 관람에 참여하는 비율은 16.49%이다. 이러한 여가활동 패턴의 특성을 고려하여 2유형을 '스포츠·관광 몰입형'으로 명명하였다.

3유형은 전체의 15.65%로, 표본 수는 1,557명으로 확인되었다. 이 유형에서는 여가활동 중 취미오락(100%)과 휴식(98.91%)에 대한 참여확률이 가장 높다. 다음으로 문화예술 관람(25.46%)과 스포츠 관람(20.74%)의 참여확률은 20%를 넘는다. 문화예술 참여는 5%에 그쳤으며, 스포츠 참여(0.00%), 관계형 여가(0.00%), 관광(0.00%) 등의 여가활동에 대한 참여가 매우 낮은 특징을 보인다. 취미오락과 휴식에의 참여확률이 가장 높은 3유형의 여가활동 특성을 고려하여 이 유형에 속한 사람들을 '취미오락 중심형'이라 명명하였다.

4유형은 전체의 약 7%로, 표본 수는 665명으로 나타났다. 이 유형은 스포츠참여(99.98%), 관광(99.98%), 문화예술 관람(98.77%) 등 적극적인 여가로 분류되는 활동에의 참여확률이 높으며, 휴식(80.08%), 취미오락(61.64%), 관계형 여가(33.68%) 등 일상에서 가볍게 이루어지는 여가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로 구성된다. 또한 8개의 여가활동 중 참여 비율이 50%가 넘는 활동의 수가 5개로 나타나 다른 유형에 비해 다양한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4유형을 '적극적 옴니보어형'으로 명명하였다.

5유형은 전체의 6%로, 표본 수는 407명이다. 이 유형은 다른 집단과 비교했을 때 문화예술 참여(13.92%)와 스포츠 관람(22.89%)은 참여 비율이 높고, 문화예술관람 참여 비율은 42.31%로 적극적 옴니보어형 다음으로 높다. 반면에 휴식(73.5%)과 취미오락 활동(43.6%) 참여 비율이 가장 낮은 집단이다. 이 유형은 다른 유형에 비해 휴식에의 참여가 저조하고 취미오락, 관계형 여가 그리고 문화예술 관람 등 성격이 상반되는 여가활동에 고루 참여하는 것을 고려하여 '문화예술 애호가형'으로 명명되었다.



<그림 1> 여가활동에 따른 잠재집단별 소속확률

2. 여가활동에 따른 잠재집단 유형별 특성

잠재유형별 사회경제적 특성, 인구학적 특성과 여가자원 특성은 <표 4>와 같다. 1유형인 '일상적 여가형'의 교육수준은 중학교 졸업의 비율은 26.42%로 5개 유형 중 가장 높으며, 고등학교 졸업의 비율도 40.11%로 가장 높다. 반면에 월평균 가구소득은 3.77로 가장 낮다. 직업별로는 직업 없음의 비율(37.67%)과 단순노무기능직의 비율(12.87%) 그리고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비율(6.23)이 가장 높고, 관리직/전문가의 비율(2.10%)과 사무직(11.86%)의 비율이 가장 낮다. 거주지역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비율이 19.17%로 5개의 잠재유형 중 가장 낮다. 인구학적 특성은 여성 비율이 55.87%로 가장 높고, 평균 연령 또한 51.87세로 가장 높다. 혼인 여부를 살펴보면 배우자가 있는 비율이 61.22%로 5개 유형 중 세 번째로 높았으며, 미취학자녀 수 0.09, 취학자녀 수 0.27, 성인자녀 수 0.29로 연령대별 평균 자녀 수가 낮은 편이다. 일인가구 비율은 24.77%로 5개 유형 중 두 번째로 높다. 여가자원 특성을 살펴보면 평균 여가시간은 9.20시간으로 가장 많고, 평균 여가비용은 129,689.9원으로 가장 적다.

2유형인 '스포츠·관광 몰입형'은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졸업의 비율이 37.79%, 4년제 대학 졸업의 비율이 32.90%로 5개 유형 중 두 번째로 높다. 중학교 졸업의 비율은 10.21%로 낮다. 월평균 가구소득은 4.46으로 5개 유형 중 두 번째로 많다. 직업별로는 관리직/전문가의 비율이 5.95%, 사무직의 비율이 21.85%로 5개 유형 중 두 번째로 높다. 거주지역의 경우 수도권 거주비율이 30.74%이다. 이 유형은 월평균 가구소득과 교육수준, 관리직/전문가와 사무직의 비율이 높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남성의 비율이 55.04%로 높고, 평균 연령은 47.41세이다. 혼인 여부는 배우자 있음의 비율이 66.6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평균 자녀수는 미취학자녀 수 0.13, 취학자녀 수 0.39, 성인자녀 수 0.30으로 모든 연령대의 자녀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인가구의 비율은 19.65%로 가장 낮다. 여가자원의 특성은 평균 여가시간이 8.82시간으로 두 번째로 길고, 평균 여가비용은 189,339원으로 가장 많은 여가비용을 지출한다. 여가시간이 긴 편이라는 이 유형의 특성은 스포츠 활동을 적극적으로 즐길 가능성은 경제적 자본과 문화적 자본 그리고 여가 시간에 달려 있다는 부르디외(Bourdieu 2004: 209)의 지적과 부합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표 4> 잠재유형별 사회경제적 특성, 인구학적 특성 및 여가자원 특성 (단위: 명, %)

		일상적 여가형	스포츠·관광 몰입형	취미오락 중심형	적극적 옴니보어형	문화예술 애호가형
사회경제적 특성						
교육수준	중학교 졸업	1,170(26.42)	242(10.21)	262(16.83)	19(2.86)	44(10.81)
	고등학교 졸업	1,776(40.11)	896(37.79)	637(40.91)	191(28.72)	132(32.43)
	전문대 졸업	555(12.53)	426(17.97)	263(16.89)	171(25.71)	86(21.13)
	4년제 대학 졸업	904(20.42)	780(32.90)	385(24.73)	274(41.20)	136(33.42)
	대학원 이상	23(0.52)	27(1.14)	10(0.64)	10(1.50)	9(2.21)
가구소득	월평균 가구소득	3.77(1.74)	4.46(1.61)	4.15(1.75)	4.83(1.55)	4.33(1.75)
직업	관리직/전문가	93(2.10)	141(5.95)	49(3.15)	40(6.02)	18(4.42)
	사무직	525(11.86)	518(21.85)	267(17.15)	175(26.32)	82(20.15)
	판매/서비스직	1,296(29.27)	665(28.05)	448(28.77)	221(33.23)	124(30.47)
	농림어업	276(6.23)	60(2.53)	48(3.08)	3(0.45)	13(3.19)
	단순노무기능직	570(12.87)	344(14.51)	274(17.60)	76(11.43)	50(12.29)
	직업 없음	1,668(37.67)	643(27.12)	471(30.25)	150(22.56)	120(29.48)
거주지역	수도권	849(19.17)	729(30.74)	435(27.93)	238(35.79)	284(69.78)
	비수도권	3,579(80.83)	1,642(69.25)	1,122(72.06)	427(64.21)	123(30.22)
인구학적 특성						
성별	남성	1,954(44.13)	1,305(55.04)	876(56.26)	339(50.98)	288(51.11)
	여성	2,474(55.87)	1,066(44.96)	681(43.74)	326(49.02)	199(48.89)
연령	연령	5,1.87(16.94)	47.41(14.19)	50.11(15.64)	41.07(12.71)	42.94(16.52)
혼인 여부	배우자 있음	2,711(61.22)	1,580(66.64)	1,000(64.23)	389(58.50)	196(48.16)
	배우자 없음	1,717(38.78)	791(33.36)	557(35.77)	276(41.50)	211(51.84)
자녀 수	미취학자녀 수	0.09(0.36)	0.13(0.41)	0.13(0.41)	0.13(0.39)	0.09(0.34)
	취학자녀 수	0.27(0.64)	0.39(0.72)	0.32(0.66)	0.39(0.71)	0.26(0.62)
	성인자녀 수	0.29(0.63)	0.30(0.64)	0.32(0.64)	0.30(0.68)	0.22(0.59)
일인가구	일인가구	1,097(24.77)	466(19.65)	356(22.86)	140(21.05)	104(25.55)
	다인가구	3,331(75.23)	1,905(80.35)	1,201(77.14)	525(78.95)	303(74.45)
여가자원						
	여가시간	9.20(3.76)	8.82(3.50)	8.78(3.64)	7.65(3.56)	8.19(3.93)
	여가비용	129,689.9 (121,572.4)	189,339 (155,593.4)	146,036 (113,487.9)	149,389.5 (114,591.2)	156,551.6 (159,313.7)

주: 연속형 변수인 가구소득, 연령, 여가시간, 여가비용은 평균(표준편차)를, 범주형 변수인 교육수준, 직업, 거주지역, 성별, 혼인여부, 일인가구 여부는 응답빈도(비율)임.

3유형인 ‘취미오락 중심형’은 다른 여가유형들과 교육수준을 비교할 때 고등학교 졸업의 비율은 40.91%로 가장 높고, 중학교 졸업의 비율은 16.83%로 두 번째로 높다. 반면 4년제 대학 졸업과 대학원 이상의 비율은 각각 24.73%, 0.64%로 낮다. 월평균 가구소득은 4.15로 5개 유형 중 두 번째로 낮다. 직업의 경우 단순노무기능직의 비율이 17.60%로 5개 유형 중 가장 높고, 직업 없음의 비율은 30.25%로 두 번째로 높다. 거주지역을 살펴보면 수도권에 거주하는 비율이 27.93%로, 5개 유형 중 두 번째로 낮다. 남성의 비율이 56.26%로 가장 높은 집단이면서 평균 연령은 50.11세로 5개 유형 중 두 번째로 높다. 혼인 여부의 경우 배우자 있음이 64.23%로 5개 유형 중 두 번째로 높다. 자녀 수는 미취학 자녀 수(0.13)와 성인자녀 수(0.32)가 가장 많다. 일인가구 비율은 22.86%로 세 번째로 높다. 여가자원 특성은 여가시간은 평균 8.78시간으로 5개 유형 중 세 번째로 길며, 여가비용은 146,036원으로 일상적 여가형에 이어 두 번째로 낮다.

4유형인 ‘적극적 옴니보어형’은 교육수준은 4년제 대학 졸업의 비율이 41.20%, 전문대 졸업의 비율이 41.20%로 교육수준이 높은 특징을 보인다. 대학원 이상의 비율도 1.50%로 두 번째로 높다. 반면, 중학교 졸업의 비율은 2.86%, 고등학교 졸업의 비율은 28.72%로 낮다. 월평균 가구소득은 4.83으로 5개 유형 중 가장 높다. 관리직/전문가 6.02%, 사무직 26.32%, 판매/서비스직 33.23%의 비율이 가장 높다. 이와 달리, 농림어업 0.45%, 단순노무기능직 11.43%, 직업 없음 22.56%의 비율은 가장 낮다. 여성의 비율이 49.02%로 5개 유형 중 두 번째로 높다. 거주지역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비율이 35.79%로 5개 유형 중 두 번째로 높다. 평균 연령은 41.07세로 5유형 중 가장 낮다. 혼인 여부 중 배우자 있음의 비율은 58.50%로 두 번째로 낮다. 평균 자녀 수는 미취학자녀 수 0.13, 취학자녀 수 0.39, 성인자녀 수 0.30으로 스포츠·관광 몰입형과 함께 전 연령대별 자녀 수가 가장 많다. 일인가구 비율은 21.05%로 두 번째로 낮다. 여가자원의 경우 여가시간은 평균 7.65시간으로 가장 짧고, 여가비용은 149389.5원으로 세 번째로 많다.

5유형인 ‘문화예술 애호가형’은 교육수준은 대학원 이상의 비율이 2.21%로 5개 유형 중 가장 높고, 4년제 대학 졸업의 비율(33.42%)과 전문대 졸업의 비율(21.13%)도 높다. 가구소득은 4.33으로 5개 유형 중 두 번째로 낮다. 이처럼 교육수준에 비해 가구소득이 낮은 이유는 이 유형에 속한 사람들 중 일인가구의 비율이 높기 때문이라 해석할 수 있다. 직업별 비율의 경우 판매/서비스직(30.47%)과 농림어업

(3.19%)의 비율이 두 번째로 높다. 거주지역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비율이 69.78%로 5개 유형 중 가장 높다. 남성의 비율이 51.11%로 5개 유형 중 두 번째로 낮으며, 평균 연령 또한 42.94세로 두 번째로 낮다. 혼인 여부를 살펴보면 배우자 없음의 비율이 51.84%로 5개 유형 중 가장 높다. 연령대별 평균 자녀 수는 미취학자녀 수 0.09, 취학자녀 수 0.26, 성인자녀 수 0.22로 모든 연령대에서 자녀 수가 가장 적다. 일인가구의 비율은 25.55%로 가장 높다. 여가자원의 특성 중 여가시간은 평균 8.19시간으로 5개 유형 중 두 번째로 짧고, 여가비용은 평균 156,551.6원으로 두 번째로 많다.

3. 여가활동에 따른 잠재집단 유형의 영향요인

다음으로 사회경제적 특성, 인구학적 특성 그리고 여가자원 특성 중 어떤 요인이 여가활동의 잠재유형을 분류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인가를 살펴보기 위해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5>는 '일상적 여가형'을 준거집단으로 삼고 각각 다른 유형에 속할 확률을 분석한 결과이며, <그림 2>~<그림 6>은 각 잠재집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양상을 그래프로 나타난 것이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먼저 사회경제적 특성 중 교육수준은 '일상적 여가형'과 다른 여가유형을 구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졸에 비해 교육수준이 높을 경우 '일상적 여가형'보다 '스포츠·관광몰입형', '적극적 옴니보어형'에 속할 승산이 더 높다. 한편 고졸, 전문대졸, 4년제 대졸일 경우 '취미오락 중심형'에, 전문대졸과 대학원은 '문화예술 애호가형'에 속할 승산이 더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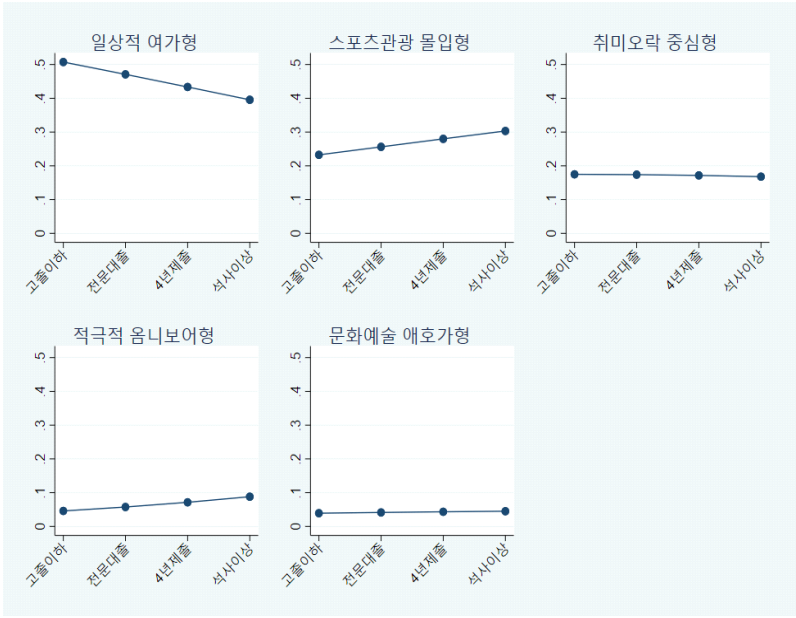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준거집단인 '일상적 여가형'보다 나머지 4개 여가활동 유형에 속할 승산이 더 높았다. 이는 소득수준이 경험하는 여가활동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다는 선행연구의 주장과 일치하는 결과이다(서헌·공윤주 2015). 구체적으로, 여가활동 유형화에 대한 가구소득의 영향을 시각화한 <그림 3>을 보면 일상적 여가형은 소득이 낮은 사람들의 비중이 가장 크고 고소득일수록 소속될 확률이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반대로, 스포츠·관광 몰입형은 소득이 많을수록 이 유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적극적 옴니보어형도 스포츠·관광 몰입형과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취미오락 중심형이나 문화예술 애호가형은 전 소득수준에서 소속가능성이 비슷하게 나타나 소득의 영향력이 크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5> 잠재집단유형의 영향요인에 대한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일상적 여가형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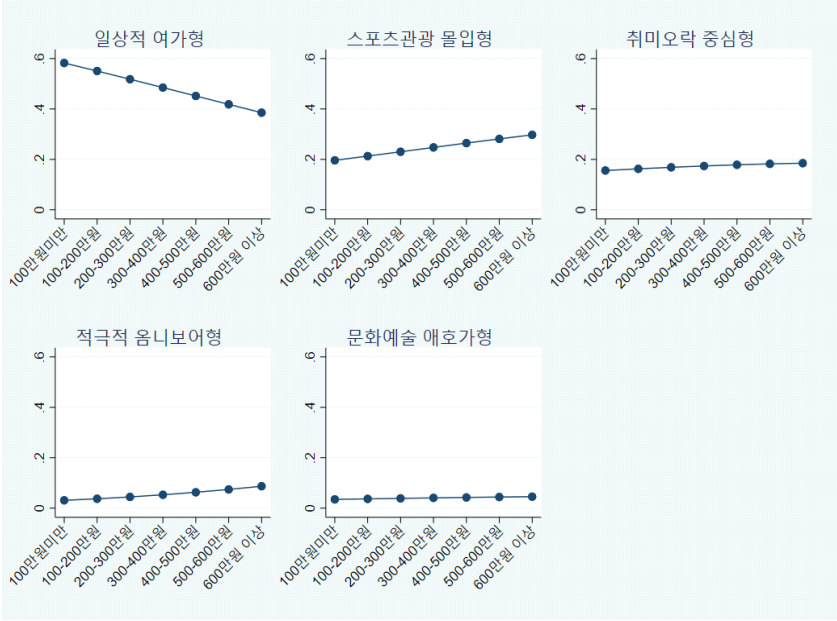
			스포츠·관광 몰입형		취미오락 중심형		적극적 옴니보어형		문화예술 애호가형	
			Coef	*SE*	*Coef*	*SE*	*Coef*	*SE*	*Coef*	*SE*
사회경제적 특성	교육수준(중졸 기준)	고졸	0.46***	0.10	0.29**	0.11	0.78**	0.27	0.19	0.23
		전문대졸	0.79***	0.13	0.57***	0.14	1.50***	0.30	0.59*	0.27
		4년제 대졸	0.81***	0.13	0.44**	0.14	1.38***	0.30	0.41	0.27
		대학원	0.82**	0.32	0.31	0.40	1.78***	0.48	1.49**	0.47
	가구소득		0.10***	0.02	0.07**	0.03	0.20***	0.04	0.08+	0.04
	직업(직업 없음 기준)	관리자 및 전문직	0.45**	0.16	0.10	0.20	0.37	0.23	0.25	0.30
		사무직	0.23*	0.09	0.17	0.11	0.17	0.14	0.02	0.17
		판매서비스직	-0.12	0.08	-0.04	0.09	0.08	0.12	-0.02	0.15
		농림어업	-0.51**	0.16	-0.54**	0.17	-1.53*	0.60	-0.08	0.31
		단순조립기능직	0.01	0.10	0.15	0.10	0.06	0.17	0.01	0.20
	거주지역(비수도권 기준)		0.42***	0.06	0.36***	0.07	0.46***	0.10	0.38**	0.12
인구학적 특성	성별(남성 기준)		-0.32***	0.06	-0.43***	0.07	-0.19*	0.09	-0.19*	0.11
	연령		0.01**	0.00	0.01**	0.00	-0.02***	0.01	-0.02**	0.01
	혼인 여부(배우자 없음 기준)		0.26**	0.10	0.08	0.11	0.39*	0.16	-0.20	0.18
	미취학자녀 수		0.04	0.08	0.16+	0.08	-0.20	0.13	-0.28	0.17
	취학자녀 수		0.05	0.05	0.02	0.05	-0.00	0.08	-0.13	0.10
	성인자녀 수		-0.06	0.05	0.01	0.05	0.10	0.08	-0.11	0.11
	다인가구(일인가구 기준)		0.24*	0.10	0.19	0.12	0.60***	0.16	0.11	0.18
여가자원	여가시간		-0.01	0.01	-0.01+	0.01	-0.09***	0.01	-0.06***	0.02
	여가비용(logged)		0.47***	0.04	0.15***	0.04	0.11+	0.06	0.05	0.07
LR chi			1385.40***							
Pseudo R^2			0.06							
Number of obs			9423							

주) 여가비용은 로그값을 취하여 모형에 포함시킴.

+ $p<0.1$, * $p<0.05$, ** $p<0.01$, *** $p<0.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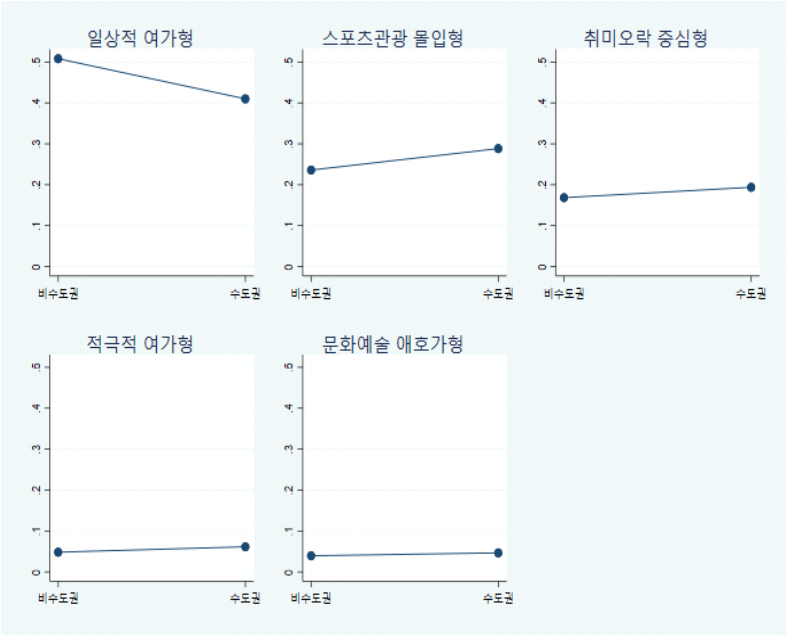


<그림 2> 여가활동 유형화에 대한 교육수준의 영향



<그림 3> 여가활동 유형화에 대한 가구소득의 영향

직업별로는 관리자 및 전문직, 사무직은 준거집단인 ‘일상적 여가형’에 비해 ‘스포츠·관광 몰입형’, ‘적극적 옴니보어형’, ‘문화예술 애호가형’에 속할 승산이 더 높았다. 이는 관리자 및 전문직이나 사무직이 다른 직종 종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양한 여가활동을 즐긴다고 보고한 기존연구의 결과(남은영·최유정 2008)와 일치한다. 한편, 판매서비스직과 단순조립기능직에 종사할 경우 ‘일상적 여가형’보다 ‘문화예술 애호가형’에 속할 승산이 더 높았다. 반면, 농림어업에 종사할 경우 ‘일상적 여가형’보다 ‘스포츠·관광 몰입형’, ‘취미오락 중심형’, ‘적극적 옴니보어형’에 속할 승산이 더 낮았다.



<그림 4> 여가활동 유형화에 대한 거주지역의 영향

또한 거주지역 역시 ‘일상적 여가형’과 여타 다른 나머지 여가집단을 구분하는 유의미한 변수로 확인되었다. <그림 4>의 그래프에서도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경우 일상적 여가형에 속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여가활동에 있어 지역의 영향력을 강조해 왔던 기존 연구들(허지정·최막중 2009; 홍윤미 외 2015; 장혜미·김재범 2014; 이재희 2010; 박태선 외 2015)과 유사한 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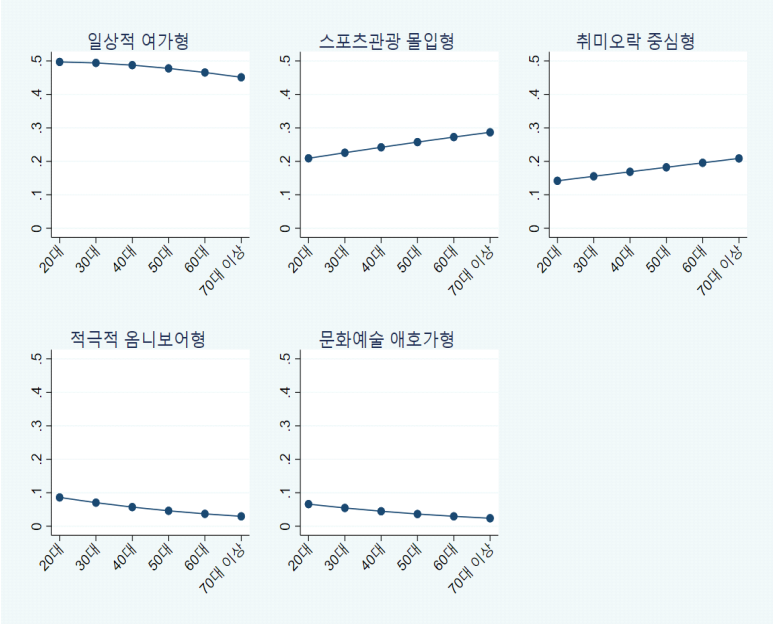
과이다. 비수도권에 거주할 경우 수도권보다 여가시설이 적거나 접근성이 낮기 때문에 특별한 지식이나 교육경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여가유형, 즉 휴식 또는 관계형 여가를 주로 하는 '일상적 여가형'에 소속될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인구학적 특성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먼저 성별의 경우 <그림 5>와 같이 남성이 여성보다 준거집단인 '일상적 여가형'을 제외한 4개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큰 반면, 여성은 남성보다 '일상적 여가형'에 속할 가능성이 더 크다. 이는 여성이 남성보다 여가생활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한 선행연구(강은나 2016; Bihagen & Katz-Gerro 2000)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일상적 여가형'은 5개 집단 중 직업없음의 비율이 가장 높고 여가시간이 가장 긴 집단이다. 이는 여성이 남성보다 경제활동에 덜 참여하는 점과 연관지어 볼 수 있다.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남성에 비해 여성은 상대적으로 다양한 여가활동을 즐기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 여가경력이 필요한 진지한 여가에 접근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강은나 2016).

<그림 5> 여가활동 유형화에 대한 성별의 영향

연령이 여가활동 유형의 구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준거집단인 '일상적 여가형'보다 '스포츠·관광 몰입형'과 '취미오락 중심형'에 속할 승산은 더 높다. 주목할 점은 <그림 6>에서 볼 수 있듯이, 전 연령대에서 고루 '일상

적 여가형'에 속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기존의 여가 연구에서 소극적 여가는 여가시간이 많지만 여가경력이 부족하고 집안에서 '시간때우기'의 성격이 강한 여가를 경험하는 노년층의 전유물로 간주되어 왔다(이훈·박창환 2017). 하지만 <그림 6>의 그래프를 보면 노인세대뿐 아니라 20~30대 청년세대에서도 소극적 여가를 즐길 확률이 높다. 이는 청년세대의 경우 문화예술, 스포츠 참여, 관광 등의 여가활동보다 일상적 여가형의 여가양상 중 '관계형 여가'를 즐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정병두 2017). 즉, 동일한 여가활동유형에 속하더라도 세대에 따라 면밀한 여가양상은 다를 수 있으며, 따라서 앞으로 세대별 비교 작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와 반대로 연령이 낮을수록 '일상적 여가형'보다 '적극적 옴니보어형'과 '문화예술 애호가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연령이 낮을수록 자기실현 욕구가 강하고, 여가경력이 풍부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Hitchings et al. 2018).



<그림 6> 여가활동 유형화에 대한 연령의 영향

배우자 유무와 관련하여, 배우자가 있는 경우 '일상적 여가형'에 비해 '스포츠·관광 몰입형'과 '적극적 옴니보어형'에 속할 가능성이 더 크다. 이는 배우자와 함께하면 더 적극적인 여가생활을 할 수 있으며(강은나 외 2015), 특히 스포츠 관련 활동

은 배우자가 있는 경우의 참여율이 높다는 주장(김미혜 외 2018)을 참고하면 해석이 가능하다.

한편 연령대별 자녀 수를 살펴보면, 성인자녀 수와 취학자녀 수는 '일상적 여가형'과 다른 유형을 구분하는 변인으로 유의하지 않다. 이와 달리, 미취학 자녀 수는 $p < 0.1$ 수준에서 '일상적 여가형'에 비해 '취미오락 중심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결과는 기존 연구에서 밝혀졌던 자녀의 연령과 여가활동의 상관성, 즉 자녀의 연령이 여가의 제약요인으로 작동하거나 자녀교육을 위해 여가활동이 활성화되고 여가의 폭이 넓어질 수 있다는 점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자녀의 연령이 여가활동 유형화를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국내에서 가장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일인가구의 형태와 여가활동 유형을 살펴본 결과 다인가구가 일인가구보다 '일상적 여가형'에 비해 '스포츠·관광 몰입형'과 '적극적 옴니보어형'에 속할 승산이 더 높았다. 이는 다인가구에 비해 일인가구가 소극적이고 수동적이며 여가시간의 많은 부분을 집에서 보내기 때문으로 보인다(황영주·이훈 2018; 강은나 외 2017; 김은정 2017; Jeong & Yoon 2018)

여가자원은 여가활동 유형을 구분짓는 데 부분적으로 유의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여가시간이 적을수록 '일상적 여가형'보다 '적극적 옴니보어형'과 '문화예술 애호가형'에 속할 승산이 더 높다. 여가비용을 많이 지출할수록 '일상적 여가형'에 비해 '스포츠·관광 몰입형', '취미오락 중심형', '적극적 옴니보어형'에 속할 승산이 더 높다.

Ⅴ. 결론 및 논의

이 연구에서는 한국인의 여가활동 잠재유형을 추출하여 유형별 특성을 비교하고 여가활동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고자 했다. 개인의 여가패턴은 개별 여가활동들의 결합을 통해 구성되기 때문에 복합적인 여가유형을 탐색하고 왜 이러한 이질화가 나타나는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잠재적 계층분석을 실시하여 여러 여가활동을 기반으로 잠재계층집단을 포착하고, 집단 내 이질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보다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확인하려는 시도를 했다. 구체적으로 사회경제적 요인, 인구학적 요인, 그리고 여가자원 요인이

함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하에,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검증하고자 했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예술 관람, 문화예술 참여, 스포츠 관람, 스포츠 참여, 관광, 취미오락, 휴식, 관계형 여가 등 8개 여가활동에 기초하여 여가활동 잠재집단을 유형화한 결과, 한국인의 여가활동 유형은 '일상적 여가형', '스포츠·관광 몰입형', '취미오락 중심형', '적극적 옴니보어형', '문화예술 애호가형' 등 5개의 유형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러 여가활동의 결합을 통해 특징적인 여가활동 유형이 형성되었을 것이라는 가정을 확인해 주는 결과이다. 둘째, 여가활동 유형 소속과 관련하여 교육수준, 월평균 가구소득, 거주지역 등의 사회경제적 특성, 성별, 연령 등의 인구학적 특성이 '일상적 여가형'과 다른 4가지 유형을 구분짓는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인구학적 특성 중 혼인 여부와 일인가구 여부, 여가시간과 여가비용 등 여가자원은 부분적으로 '일상적 여가형'과 다른 유형을 구분짓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여가활동을 둘러싼 이질성과 분화양상이 보다 다양한 개인의 특성에서 야기되는 현상임을 확인해 준다.

한국사회에서 여가는 여가환경의 개선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핵심영역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그 중요성이 나날이 강조되고 있다(조미라 2016).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가활동과 여가활동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는 개별 여가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몇몇 요인의 영향력만을 검증함으로써 여가를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경향이 있었다. 여가활동의 유형화를 시도한 일련의 연구들 또한 연구대상이나 여가활동 범위가 한정적이라는 문제가 자주 지적되곤 했다. 더욱이 여가활동 유형이 어떤 요인의 영향을 받는지에 대한 분석은 부족했다. 이 연구는 한국인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여가활동의 유형화를 통한 이질성과 분화를 확인하고, 다양한 영향요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여가활동에 대한 풍부한 설명을 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이 논문은 잠재화된 여가활동 유형화와 영향요인의 연관성을 검토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지닌다. 그러나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를 지닌다. 첫째, 특정 요인이 여가활동 유형을 결정짓는 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경험분석을 통해 밝혔으나, 이러한 영향력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를 충분히 밝히지 못했다. 후속 연구에서는 각 여가활동 유형집단과 여가활동 영향요인의 연관성에 대한 질적연구를 수행하여 행위자가 부여하는 의미에 대해 해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둘째, 분석자료의 제한으로 여가활동에 대한 영향력이 알려진 계층, 주관적 계층의식, 주관적 건강인식 등 주요 요인의 영향력을 검토하지 못했다. 향후에는 풍부한 정보를 담은 자료를 활용

하여 충분한 분석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강은나. 2016. “경제활동참여 중고령자의 성별에 따른 여가유형과 여가만족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71(2): 111-137.

강은나·김혜진·정병오. 2015. “후기 노년기 사회적 관계망 유형과 우울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46(2): 229-255.

강은나·김혜진·김영선. 2017. “도시지역 1인 가구 중고령자의 여가활동 유형과 우울 수준.” ≪보건사회연구≫ 37(2): 184-215.

권소영·이재림. 2019. “맞벌이 부부의 근로시간 유형화와 유형별 일· 생활 균형: 근로시간의 양, 근로시간대, 근로시간 유연성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7(4): 1-25.

김미경·김지은. 2017. “노인들의 여가제약이 여가만족 및 삶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관광연구≫ 32(8): 91-109.

김미혜·원형중·권지혜·황선영. 2018. “여성노인 1인가구의 여가스포츠 참여특성과 여가만족 및 행복.” ≪한국사회체육학회지≫ 74: 449-458.

김수아·김남조. 2020. “베이비붐 세대와 밀레니얼 세대의 여가환경이 여가만족에 미치는 영향 비교-여가공유자를 중심으로.” ≪관광연구논총≫ 32(3): 121-143.

김영서. 2020. “자녀가 있는 기혼 취업여성의 생활시간 활용에 따른 잠재프로 파일 여가특성의 차이 분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세미나자료. 367-397.

김은정. 2017. “청·중년층 1인가구의 라이프 스타일과 여가활동에 관한 연구: 동적 여가활동을 중심으로.” ≪한국외식산업학회지≫ 13(2): 45-60.

김외숙. 2016. “노인의 여가참여유형에 따른 생활만족도의 차이.”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20(1): 23-42.

남석인·채주석·원해솔·이주영. 2020. “잠재프로파일 (LPA) 분석을 활용한 노인의 생활시간 유형의 영향요인과 유형에 따른 생활만족도.” ≪한국노년학≫ 40: 781-800.

남은영·최유정. 2008. “사회계층 변수에 따른 여가 격차: 여가 유형과 여가 및 삶의 만족도를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31(3): 57-84.

남은영·이재열·김민혜. 2012. “행복감, 사회자본, 여가: 관계형 여가와 자원봉사활동의 함의를 중심으로.”≪한국사회학≫ 46(5): 1-33.

박근수. 2011. “잠재집단분석방법을 활용한 노인여가유형별 특성 분석: 서울지역 노인여가시설 이용자를 중심으로.”≪노인복지연구≫ 53: 83-100.

박미진. 2017. “사회적 활동 잠재계층유형이 노인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빈곤

노인과 비빈곤노인의 비교.” ≪노인복지연구≫ 72(2): 191-214.
부르디외. 2005. ≪구별짓기≫. 최종철 옮김. 동문선.
서헌·공윤주. 2015. “인구 통계적 특성에 따른 여가 유형에 관한 연구: Kelly의 이론을 적용하여.” ≪관광레저연구≫ 27(12): 463-477.
성연주. 2018. “성인기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문화예술향유 확대: 장르별 차이를 중심으로.” ≪GRI 연구논총≫ 20(3): 287-310.
송유진. 2017.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여가시간을 중심으로.” ≪통계연구≫ 22(4): 1-30.
안주석·임근욱. 2017. “노인의 여가활동 참여와 지속의도에 관한 연구.” ≪관광연구저널≫ 31(2): 113-125.
양광희·한승진·이우형. 2008. “공군 장병의 여가활동 참여와 여가만족의 관계.” ≪한국여가 레크리에이션학회지≫ 32(1): 83-97.
윤소영·차경욱. 2004. “여가인식, 활동유형 및 여가제약의 세대 간 비교.” ≪가정과 삶의 질 연구≫ 22(2): 97-107.
윤소영. 2018. “한국인의 여가욕구와 여가자원의 불균형,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한국여가 레크리에이션학회 학술세미나자료집. 3-16.
윤혜진. 2015. “노년기 여가활동과 삶의 질: 노년학의 활동 이론(activity theory) 을 중심으로.” ≪관광레저연구≫ 27(9): 165-181.
이상직·김이선·권현지. 2018. “변한 것과 변하지 않은 것: 남녀 대졸자 노동이력으로 본 위기 전후 한국 청년 노동시장의 구조 변화.” ≪경제와사회≫ 118: 139-181.
이소정. “우리나라 노인의 사회참여 유형분석.” ≪한국인구학≫ 32.1 (2009): 71-91.
이훈·박창환. 2017. “여가를 통한 자기정체성 형성 모형: 베이비붐 세대의 여가소외 극복을 중심으로.” ≪관광연구논총≫ 29(2): 25-50.
정병두. 2017. “노인의 여가활동에 관한 잠재계층분석.” ≪사회과학연구≫ 33(4): 163-180.
조미라. 2016. “여가시간 불평등 연구: 1999~2009년 성별 여가시간양의 변화 및 불평등 요인분석.” ≪한국인구학≫ 39(1): 29-57.
지우석·이수진·박경철. 2013. “여가 문화의 새로운 트렌드.” ≪이슈 & 진단≫ 102: 1-25.
차승은. 2012. “기혼 취업자의 주말여가패턴: 2009 생활시간자료를 중심으로.” ≪여가학연구≫ 9(3): 61-90.
한승엽·김흥렬·윤설민·장윤정. 2007. “여가활동 유형에 따른 여가만족과 생활만족의 관계 연구: 문화적 여가활동을 중심으로.” ≪관광연구≫ 22(3): 323-339.
허지정·최막중. 2009. “지역의 문화서비스 공급이 가계의 문화소비에 미치는 영향.” ≪국토계획≫ 44(6): 161-169.
홍윤미·이명우·윤기웅. 2015. “문화예술향유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GRI 연구논총≫ 17(1): 185-211.

황남희. 2014. “한국 노년층의 여가활동 유형화 및 영향요인 분석.” ≪보건사회연구≫ 34(2): 37-69.

황영주·이훈. 2018. “소극적여가 의미에 대한 재해석: 여가트렌드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 관광학회 국제학술발표대회집. 84: 225-228.

Ahn, Young-joo and Megan C. Janke. 2011. “Motivations and Benefits of the Travel Experiences of Older Adults.” *Educational Gerontology* 37(8): 653-673.

Alderson, Arthur S., Azamat Junisbai, and Isaac Heacock. 2007. “Social Status and Cultural Consumption in the United States.” *Poetics* 35(2-3): 191-212.

Amato, Paul R, Valarie King, and Maggie L. Thorsen. 2016. “Parent–child Relationships in Stepfather Families and Adolescent Adjustment: A Latent Class Analysi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8(2): 482-497.

Bihagen, E., and Katz-Gerro, T. 2000. “Culture Consumption in Sweden: The Stability of Gender Differences.” *Poetics* 27(5-6): 327-349.

Brown, Jennifer L, Ronald MacDonald, and Richard Mitchell. 2015. “Are People Who Participate in Cultural Activities More Satisfied with Life?” *Social Indicators Research* 122(1): 135-146.

Choi, Chulhwan, and Chul-Ho Bum. 2019. “Physical Leisure Activity and Work for Quality of Life in the Elderly.”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 Sport* 19(2): 1230-1235.

Choi, SetByol, Su Jung Kim, and Myoung-Jin Lee. 2017. “A Cultural Map of South Korea, 2011.” *Korea Observer* 48(3): 549-575.

Dumazedier, J. 1967. *Toward a society of leisure*. New York: Free Press.

Gans, Herbert J. 2008. *Popular Culture and High Culture: An Analysis and Evaluation of Taste*. New York: Basic books.

Gayo-Cal, M., Savage, M., and Warde, A. 2006. “A Cultural Map of the United Kingdom, 2003.” *Cultural Trends.* 15(2-3): 213-237.

Gayo-Cal, Modesto. 2006. “Leisure and Participation in Britain.” *Cultural Trends* 15(2-3): 175-192.

Gracia, Pablo. 2015. “Parent–Child Leisure Activities and Cultural Capital in the United Kingdom: The Gendered Effects of Education and Social Class.” *Social Science Research* 52: 290-302.

Haworth, John Trevor and Anthony James Veal(eds). 2004. *Work and leisure*. New York: Psychology Press.

Hitchings, Russell, Alison Browne, and Tulia Jack. 2018. “Should There Be More Showers at the Summer Music Festival? Studying the Contextual Dependence of Resource Consuming Conventions and Lessons for Sustainable Tourism.” *Journal of Sustainable Tourism* 26(3): 496-514.

Jæger, Mads Meier and Tally Katz-Gerro. 2008. “The Rise of the Cultural Omnivore 1964-2004.” Research Department of Social Policy and Welfare Services Working Paper 9.

Jeong, Yeongkeum and Soyoung Yoon. 2018. “The Leisure Behaviors of Single Households in Korea: A Generational Analysis.” *Korean Family Resource Management Association* 22(4): 1-15.

Kahma, Nina and Arho Toikka. 2012. “Cultural Map of Finland 2007: Analysing Cultural Differences Using Multiple Correspondence Analysis.” *Cultural Trends* 21(2): 113-131.

Kelly, J. R. 2019. *Leisure identities and interactions*. Routledge.

Lanza, Stephanie T and Brittany L. Rhoades. 2013. “Latent Class Analysis: An Alternative Perspective on Subgroup Analysis in Prevention and Treatment.” *Prevention Science* 14(2): 157-168.

Lee, Chungsup and Laura L. Payne. 2015. “Explo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Different Types of Serious Leisure and Successful Aging.” *Activities, Adaptation & Aging* 39(1): 1-18.

Le Roux, B., Rouanet, H., Savage, M., and Warde, A. 2008. “Class and Cultural Division in the UK.” *Sociology* 42(6): 1049-1071.

Nimrod, Galit and Hanna Adoni. 2006. “Leisure-styles and Life Satisfaction among Recent Retirees in Israel.” *Ageing and Society* 26: 607-630.

Park, Mi Jin, Nan Sook Park, and David A. Chiriboga. 2018. “A Latent Class Analysis of Social Activities and Health among Community-Dwelling Older Adults in Korea.” *Aging & Mental Health* 22(5): 625-630.

Parker, Stanley Robert. 1976. “Sociology of Leisure.” *Sociology* 10(1): 166-167.

Paul Widdop and David Cutts. 2013. “Social Stratification and Sports’ Participation in England.” *Leisure Sciences* 35(2): 107-128,

Rankin, Bruce, Murat Ergin, and Fatoş Gökşen. 2014. "A Cultural Map of Turkey.” *Cultural Sociology* 8(2): 159-179.

Roberts, Kenneth. 2006. *Leisure in Contemporary Society*. London: Cabi.

Roberts, K. 2010. *Sociology of Leisure*. *Sociopedia*. isa, 1-13.

Turner, Jonathan H. 1984. *Societal Stratification a Theoretical Analysis*. Columbia

University Press
Wilson, J. 1980. “Sociology of Leisure.” *Annual Review of Sociology* 6(1): 21-40.

<접수 2021.05.01; 수정 2021.05.01; 게재확정 2021.05.14>

Leisure Activity Patterns and Determinants among Koreans: A Latent Class Analysis

Areum Shin
(Institute for Social Development and Policy Research,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kho Kim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ttempts to identify a distinctive leisure activity pattern among Koreans. However, though the leisure pattern consists of several leisure activities, existing studies primarily concentrated on each leisure activity. To bridge the empirical gap, the present study conducts Latent Class Analysis to identify subgroups of leisure activities. The data come from National Leisure Activity Survey.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latent class analysis identified five distinct subgroups with different leisure activity types: ‘Casual Leisure’, ‘Sports and Tourism Lover’, ‘Hobby and Entertainment-Centered’, ‘Active Omnivore’, ‘Culture and Art Enthusiast’.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shows that the significant predictors of belonging to leisure activity patterns were gender, age, education, household income, and residential area. Second, among demographic characteristics, gender and age were found to differentiate four other types from the'Casual Leisure', and the marital status and single-family status were partially distinguished from the ‘Casual Leisure’ appear. On the other hand, it was found that the number of children by age group did not significantly affect. Third, as leisure time increases, it is more likely to belong to the ‘Casual Leisure’ than the ‘Active Omnivore’ and the ‘Culture and art Enthusiast’. The current research offers substantial findings that provide leisure topography in Korean society. Also, it can be extended to explain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dividual that affect the leisure activity type.

Key words: leisure activity pattern, determinants of leisure activity pattern, Latent Class Analysis, National Leisure Activity Survey